

과거와 현재·미래 연결...도심 속 문화·역사 휴양지 만든다

‘공원 도시’ 광주

〈4〉 남구의 도시 공원

광주시 남구는 향교와 포충사 등 광주의 과거를 담고 있는 한편 대규모 주거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다.

이에 따라 남구에는 역사와 농촌 등 다양한 테마 공원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심 곳곳의 근린공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휴양지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는 현재 총 52개소 80만2252.5㎡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근린공원 11곳, 어린이공원 30곳, 역사공원 3곳, 문화공원 2곳, 수변공원 1곳 등이다.

구동에 위치한 ‘광주공원’은 광주 최고의 도심공원으로 꼽힌다. 부지면적 4만9353㎡의 역사공원으로 거북이 모양을 닮은 성거산에 위치한 ‘구강공원’이라고도 불린다. 광주공원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세워졌는데, 이 신사에 참배하기를 거부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1970-80년대에는 광주시민의 추억의 나들이 공원이었고, 현재도 현충각과 시민회관, 성거사지 5층석탑 등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광주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불법 주차차량 양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광주공원에서 스트리트댄스 배틀, 디제잉 파티 등 ‘주말은 청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으로 광주공원을 청춘문화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광주공원 인근 양림동에는 또 다른 역사공원인

근린·어린이·역사·수변 공원 등 80만2252.5㎡ 부지에 52곳 조성 농부체험 등 도농복합도시 면모 특색 송하동·행암동 일대 공원 조성도

‘사직공원’이 있다. 사직공원의 이름은 과거 이곳에 있던 사직단에서 유래했다. 사직단은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사직단은 근대화가 진행된 1960년대 말 사직동 물원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동물원도 1991년 우치공원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사직공원은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전망대가 있어 광주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사업 중 하나로 미디어아트 ‘빛의 숲’이 조성돼 낭만적인 테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사직공원은 양림동 뽕나무, 선교 유적지 등과도 가까워 남구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남구에는 광주 유일의 도시농업공원 ‘빛고을농촌테마공원’ (4만9805.9㎡)도 자리잡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이란 텃밭 등을 갖춰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농부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일컫는다.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은 농업전시체험관, 화훼유리온실, 곤충박물관, 도시텃밭 등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만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등 환

경보호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들도 수시로 열린다.

추가로 남구는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일대에 오는 12월까지 대촌 들녘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야영장도 조성하고 있다.

노대동에 있는 몰빛근린공원(4만4176.6㎡)은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주민들의 힐링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입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노대제 한가운데에는 보름달 조형물이 밤마다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 가을 내내 ‘북-에코 페스티벌’, ‘노대 에코 페스티벌’, ‘가족한마당’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렸다.

남구는 주민들에게 휴식이 있는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곳곳을 끊임없이 정비하고 있다.

임암동 효천근린공원과 진월동 푸른길근린공원을 녹색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구비와 특별교부세 9억여원을 투입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다. 푸른길근린공원 끝 지점인 동성고 부근 소규모 광장에는 휴게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남구는 도심 곳곳에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송하동과 행암동 일대에는 총 사업면적 47만7561㎡의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선다. 공원은 ‘빛고을 남구의 문화커뮤니티 중심지’로서 북원숲(2만3580㎡)을 비롯한 야영장, 축구장, 문화복지센터, 생태학습장, 도시텃밭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공원이 완성되면 주민들은 시원한 숲의 바람을 맞으며 바쁜 일상을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의 김치 선물 배달합니다 27일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뿌리고, 틔우고, 나누며 마음을 연결하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한 금호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산타복을 입고 직접 버무린 김치를 들고 경로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전시회 ‘AI TECH+’ 개최

내일까지 DJ센터

광주시는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전시회인 ‘AI TECH+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관광공사·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관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 (사)인공지능산학연협회, 와이엔아처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로 3회째인 ‘AI TECH+ 2024’는 ‘AI+스타트업(Startup)’을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스트씨큐리티, 테라웨이브 등 44개 기업·기관이 80여개의 전시부스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융합산업을 선보인다.

올해는 지역 최대 규모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동반상승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해외투자 유치와 바이어 상담회, 기술활용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인공지능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 간 1대1 매칭을 돕

는 ‘AI 시너지 링크(AI Synergy Link) 상담회’도 진행된다.

또 28일에는 참관객을 대상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글로벌 사례 ▲인공지능 도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29일에는 기업 기술과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데모데이’가 열린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클라우드 전문파트너인 디모아, 쉐티씨프, 이스트씨큐리티, 위브, 한국딥러닝, 등 11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의 기술, 아이템, 솔루션 등을 발표하고, 수요기업과 직접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기업 부스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쉐티씨프는 이용자의 감정을 게임에 반영하는 ‘리얼메이트’ 게임 플랫폼을, 명신에이텍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음성인식 LED 마스크’ 등을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등록 등은 AI TECH+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안평환 의원 광주시의회, 윤리위 회부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의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날 신수정 의장이 병가로 불참해 직무대리를 맡은 채은지 부의장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본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이종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최우수 시설 2관왕

환경부 평가서 73개 시설 중 최고점

광주시는 27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환경부 주관 ‘2024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전국 73개소 시설 중 최고 점수인 86점을 받아 최우수(1위)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해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면서, 2관왕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성 및 관리체계 등을 평가하는데, 환경성·기술성·경제성·안전성·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우수 시설 등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역취기술진단 추진 및 역취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관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100% 자원화에 따른 5억5000만원 수익 창출 등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평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이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폐기물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